

현안사업 과도한 수사·소송...광주발전 발목 잡는다

광주시 민선 7기 169건 소송 당해...승소율 80% 불구 사업 차질
민간공원 특례사업만 74건이나...각종 소송전에 행정력 낭비 심각

광주시의 민선 7기 주요 현안 사업들이 과도한 수사와 민원성 소송 등에 발목이 잡히면서, 지역의 미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 삶과 밀접한 핵심 현안 사업들이 길게는 수년간 법정소송에 휘말리는 바람에 뒤늦게 승소 하더라도, 사업차질은 물론 행정력 낭비 등 각종 부작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2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민선 7기 들어 진행된 행정·민사소송 169건 가운데 136건을 승소했다. 승소율만 무려 80.5%에 이른다.

이 가운데 최근 지역 현안사업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자산유원지 개발사업 관련 소송 등에서도 연이어 광주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이 패소 이후에도 항소하거나 항소 의지를 밝히는 등 사실상 '시정 발목잡기식' 소송을 이어가면서, 관련 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게 광주시의 하소연이다.

실제 명품 도심공원을 조성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만 봐도, 광주시는 전국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정도로 모범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하고 실행 중이지만 관련 민원성 소송은 74건에 이른다. 공직사회에서 소송 때문에 업무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하소연이 쏟아지는 이유다.

재판결과만 살펴봐도 소송의 진행 가능할 수 있다.

시는 민간공원 관련해 지금까지 종결된 46건을 모두 승소했으며, 소송이 진행 중인 나머지 28건도 사안이 비슷해 광주시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 같은 소송전은 악성투서 등과 겹치면서 검찰과 경찰수사 등으로 확산했고, 광주시는 사업 차질과 함께 행정 신뢰도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검찰은 2018년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과 관련해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당시 정중재 광주시행정부시장과 감사위원장, 환경생태국장 등 시 공무원 4명을 기소했으며, 수년간의 지난한 수사과 법정 다툼 끝에 광주지법은 지난달 16일 당시 환경생태국장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도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중 핵심인 중앙공원 1지구 사업과 관련한 민원 등에 따라 광주시를 상대로 수차례 내사 등 수사를 진행했지만, 모두 '혐의 없음'으로 내부 종결했다.

연이은 수사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보상가 등 사업비가 급상승하고 해당 사업이 좌초 위기를 겪기도 했다.

이처럼 소송 등에 발목 잡힌 제2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금도 넘쳐난다. 광주시의 평등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4조원대 사업인 평등 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성 등이 불명확해 취소했지만, 당시 우선협상대상업체였던 현대엔지니어링측이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현재까지 해당 지역주민 등이 토지 등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각종 피해를 입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한술 더 떠 광주의 또 다른 대규모 사업인 첨단 3지구 개발 사업 공모에도 컨소시엄을 구성해 단독 응모했으나, 3800여 세대 아파트 대항 개발 등을 놓고 여러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용섭 광주시장은 "소송을 취하하고 안 하는 것은 업체에서 결정할 문제지만 동일한 주체(광주시)가 하는 사업인데 한쪽에서는 새로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시장은 또 광주의 주요 개발 사업마다 업체와의 소송전이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선 "일부 업체가 긴 하지만, 광주시가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시행, 주관하는 핵심 사업들에 대해 악의적 소송 등으로 방해하거나 혼드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면서도 "앞으로도 시 주도의 개발사업이 일부 기업에 의해 흔들리거나 무산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법령, 규정, 원칙에 맞춰 중심을 잡고 광주 발전만 생각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살아와 줘 고마워”...우크라이나 탈출한 고려인 동포 임현정 기자 =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후 헝가리를 거쳐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우크라이나 출신 고려인 동포 아니따 양이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할머니 남루이자씨와 만나 기뻐하고 있다. 아니따 양은 광주 고려인마을 주선으로 이날 입국했다. /연합뉴스

민주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여성·청년 30% 공천 유력

혁신 공천·대선 기여도 평가 주목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기획단 출범과 함께 본격적으로 6·1 지방선거 준비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과연 어떠한 혁신 공천안을 선보일 것인지 주목된다.

이르면 23일 출범하는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김영진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조승래 전략기획위원장을 간사로 하고 외부인사와 당내 인사들로 꾸려진다.

과제는 대선 패배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혁신 공천안' 제시 여부다. 여기에서 핵심은 기존의 정치적 기득권 구도를 최소화하는 여성·청년 공천 확대 방안이다.

송영길 전 대표는 올해 초 인적 쇄신을 발표하면서 오는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30% 이상 청년 공천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선 패배로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이후에는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이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을 확대하고 공천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에도 공직선거 후보자의 30% 이상을 여성과 청년으로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드러난 여성·청년 표심에 화답하고 공약을 준수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30%를 강제 할당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여성·청년 및 정치 신인에 대한 가점 등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경선 과정에서 여성·청년 후보자의 경우는 득표율의 최대 25%를 가산하고,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최대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혁신 공천 방안이 마련된다고 해도 과연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 지방선거 경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별 경선 구도가 거의 자리 잡혔기 때문이다. 특히, 기초·광역의원 경우, 여성·청년공천이 가능할 수 있지만 기초단체장 공천은 정치적 여지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다. 전략공천 등을 통해 역외로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작용이 많은 전략공천보다는 여성·청년에 대한 가산점을 5% 정도 더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느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비 후보들의 대선 기여도 평가도 '뜨거운 감자'다. 정량 및 정성 평가 기준이 애매한데다 탈당 경력자의 공천 신청시 페널티 조항(10% 감점)까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등과 맞물려 논란이 커질 수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올 수능 11월 17일...고난도 문항 검토단 신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제 출제 과정에 '고난도 문항 검토단'이 신설·운영된다. 전년도와 같은 출제 오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답률이 낮은 것으로 예상되는 문항은 다양한 풀이 방식을 적용해도 정답에 문제가 없는지 한 번 더 검증하기로 한 것이다. 이른바 '킬러문항' (초고난도 문항)은 가능한 한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런 내용의 '2023학년도 수능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에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문제 검토와 의의심사 제도가 강화된 점이다. 지난 수능에

서 벌어진 생명과학 II 출제 오류를 계기로 올해는 정답 논란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평가원은 밝혔다. 수능 출제 기간을 36일에서 38일로, 사회·과학 영역 검토자문위원을 8명에서 12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관련기사 7면>

수능 문제에 이의 신청이 들어오면 전문가로 구성된 '이의심사 실무위원회'를 열어 검토하는데, 이때 소수 의견이 나오면 2차 실무위원회를 열어 추가 검증토록 했다. 올해 수능은 11월 17일 목요일이며, 성적표는 12월 9일에 학생들에게 배부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수완 딜러십 Grand Open!

신차, 인증중고차 전시장 그리고 서비스센터까지
One Stop 고객 만족 서비스!



■ 위치 :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딜러십 062)714-5501 & 광주 인증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원동)